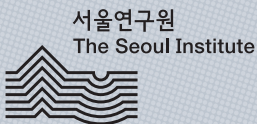


2014-CR-07

작은 연구 좋은 서울 14-06

주민참여형 자원재사용·재활용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윤호창



2014-CR-07

주민참여형 자원재사용·재활용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진

연구책임

윤호창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정책기획위원장

이 보고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서울연구원 및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차례

I	서론	6
1	서울시, 최고의 재활용 도시선언	6
2	협력적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8
II	주민참여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향	10
1	자원재활용 정책과 쓰레기 제로운동	10
2	자원순환 의식조사를 통해 본 현황분석	16
3	주민참여 재사용, 재활용 해외사례	25
4	변화하는 서울, 자원순환정책의 방향	33
III	결론	44
1	주민참여 재사용,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안	44
	부록	52

I 서론

- 1 서울시, 최고의 재활용 도시선언
- 2 협력적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I 서론

1 서울시, 최고의 재활용 도시선언

- 서울시는 지난 2014년 5월에 세계 최고의 재활용도시가 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zero waste2030 실현을 위한 세계 제일의 재활용도시 마스터플랜”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붙은 이 계획은 아래와 같이 보도되었다.

서울시가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가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개선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Zero waste, Seoul 2030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단독주택과 빌라, 다세대주택 단지 등이 모여 있는 공동주택가를 중심으로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시행한다. 재활용 정거장은 공영주차장과 공터 등에 수거대를 배치하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공동주택가의 경우 분리수거 체계를 갖춘 아파트와 달리 재활용 분리수거 쓰레기를 집 앞 등에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는 해당 지역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맡게 된다. 그곳에서 배출되는 모든 재활용품은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이 매입하게 된다. 시는 매입금을 활용해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재활용 정거장 사업에 수거관리인으로 참여하는 노인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하고 재활용품의 품목별 가격 기준을 정해 그 기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에서 관리 비용을 보전해주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를 실시한다.

공공기관과 대형유통센터, 학교를 세 축으로 하는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 Zero화’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이에 앞장서기 위해 ‘서울시청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시행한다. 종량제 봉투 수량을 절반 이상 축소하고 봉투를 배출할 때 실명을 기재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게 주요 골자다.

대형유통센터를 대상으로는 ‘폐기물 Zero 점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성과가 좋은 유통센터에는 지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과는 폐기물 제로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이업과 연계해 ‘자원순환학교’를 시범운영한다.

인식 부족으로 재활용을 할 수 있음에도 버려지는 ‘폐비닐’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20ℓ 용량의 ‘폐비닐 전용봉투’를 제작해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에 세대별로 배부한다. 이밖에 종이 팩을 동주민센터로 모아오면 재활용화장지 또는 종량제봉투 등으로 보전해주는 ‘수집보상금제’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제도도 전자폐기물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폐자원의 재활용과 재사용이 활성화 되면 매립 문제 해결과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5월 22일]

- 서울시가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선언한 쓰레기제로(zero waste)을 선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부분의 행정이 그래왔던 것처럼 정책 안에는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방식은 찾아보기 힘들고 행정중심의 선언에 불과하다.
- 물론 이전과는 달리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련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

렸다고는 하지만,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실행 단계에도 쉽지 않을 것이다. 계획에서 배제된 주민들은 이미 실행 과정에서 대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협력적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주민주도·행정지원의 방식이 제기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이러한 방식이 한국사회에 적용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제로운동과 같이 주민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과 활동은 사업의 결과나 목표만큼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환경이나 생태문제는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생활속에서 정착되지 않으면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재활용도시 마스터플랜은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으며, 주민 참여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주민 참여의 관점에서 재사용·재활용 운동, 재사용·재활용 센터의 활성화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주민참여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향

- 1 자원재활용 정책과 쓰레기 제로운동
- 2 자원순환 의식조사를 통해 본 현황분석
- 3 주민참여 재사용, 재활용 해외사례
- 4 변화하는 서울, 자원순환정책의 방향

II 주민참여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방향

1 자원재활용 정책과 쓰레기 제로운동

1.1 우리사회 자원재활용 정책흐름과 평가

- 우리나라의 폐기물법은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며,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정부는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94년부터 시작해 제1차(94~97), 제2차(98~02), 제3차(03~08), 제4차(09~12)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 자원재활용도 시대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시기별로 중점과제가 변했다.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을 분리하기 위한 기본토대를 구축했으며, 재활용 가능자원을 자원화하기 위한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활성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자원재활용을 위한 인프라구축과 각종 정책개발로 사회전반에 자원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고 재활용 성장에 주력해 목표했던 재활용률을 달성해 재활용의 질적 향상이 요청됐다.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국토면적에 대비해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우리나라

라의 여건상 매립, 소각위주의 폐기물 처리방식에서 탈피해 재활용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배경하에서 추진되었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매립시설 가운데 절반 이상이 5년 이내에 사용종료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매립, 소각 대상 물량을 줄이고 재활용 촉진 대책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이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국민 참여 방식의 생활문화운동으로 전개하는 ‘나눔장터’ 운영이 중점과제로 설정되었다.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의 정착이라는 비전아래 자원생산성 제고 및 자원순환율 제고를 정책목표로 삼았다.

- 지난 4차에 걸쳐 자원순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토가 좁고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자원재활용이 필요하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법적, 제도적 정비가 이뤄졌으며 높은 자원재활용율은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의식속에 밀착한 자원순환 문화는 부족한 편이며, 이에 대한 정책과 제도도 부족한 편이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재사용 문화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며, 일상속에 정착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재활용 분야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보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생활폐기물은 약 1만 톤이 생산돼 재활용이 63%, 소각이 25%, 매립이 12%라는 지표를 통해 재활용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세계 주요도시인 뉴욕 26%, 런던 25%, 도쿄 18%, 파리 35%의 재활용률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으로 자평하고 있다. 단기간에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는 것은 별도로 분석해야 하겠으나,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노력은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 왜냐하면 시민들의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시스템이 부족하며, 선진국처럼 일상의 생활문화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행정의 기본적인 방향이 민, 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자원재사용, 재활용 부분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되는 시기이다. 이 연구는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재사용, 재활용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다.

12 주민참여와 쓰레기제로도시(zero waste city)

- 지난 5월 서울시의 쓰레기제로선언 이전에도 세계의 많은 도시가 쓰레기 제로를 선언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 선언의 실질화를 위해서도 다른 도시에서 진행된 쓰레기제로도시의 선언과 활동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발생후 재활용보다 발생억제가 최선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처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쓰레기 문제는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현대사회 극복과 생태적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큰 문제의식 없이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과제이다. 생태적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근본적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쓰레기제로운동이 대량생산-대량폐기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 쓰레기제로운동은 1996년 호주의 수도 캔버라시가 2010년 이후 더 이상 쓰레기를 매립하지 않겠다는 쓰레기제로계획(No Waste by 2010)을 세운 것을 시작으로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시는 1989년 수립한 고품쓰레기관리계획 10년이 마감되는 1998년(재활용률 48% 달성)에 향후 10년간 재활용률 60% 달성 목표를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쓰레기관리 계획을 입안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고품쓰레기관리를 위한 의제들을 수립하

면서 쓰레기제로운동을 채택한 것이다.

- 시애틀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캐보로(Carrboro)에서 1998년에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Santa Cruz)시는 1999년에, 델 노티(Del Norte)시는 2000년에 채택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쓰레기제로 조직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정부차원의 쓰레기 없는 사회 만들기 전략이 실행되고 있다.
- 이러한 계획은 정부차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북미지역의 쓰레기운동 연대조직인 풀뿌리재활용네트워크(Grassroot Recycling Network, GRRN)라고 하는 조직의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캘리포니아 자원회수협의회, 쓰레기 없는 미국, 쓰레기제로 연맹 등의 비정부 민간조직(NGO)들이 조직되어 활동 중이며, 재활용보다 발생 억제, 감소, 재사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리사이클은 이미 배출된 폐기물을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해 물품을 만들거나 자원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만큼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쓰레기제로운동은 단기적인 활동으로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 시민들의 참여와 동의가 필수적이고,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가능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의 쓰레기 관련 정책은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시민들이 실천하도록 하는 대상화된, 이원화된 모습을 가져 한계를 보였다. 하지만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쓰레기 제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과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쓰레기 제로운동의 특징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1) 단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정도의 중장기 계

획으로 쓰레기제로운동을 계획하고 있고, 2) 재활용보다 발생억제와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3) 환경과 경제와 사회를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대처하고, 4)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와의 협력, 동의와 참여를 전제하고 있으며, 정부가 앞장서되 시민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5)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기구 혹은 조직을 만든다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13 쓰레기제로운동의 사례들

131 시애틀

- 시애틀은 인구 50만 정도의 미국서부 도시로, 1986년 사용 중인 매립지가 종료되면서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다 주민과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소각과 매립이 아닌 재활용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시는 고�형쓰레기관리계획을 입안해 10년 동안 폐기물 발생량을 60% 감소시켜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 추진했다. 아울러 폐기물관리공사를 설치해 쓰레기 줄이기 책자를 만들고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쓰레기관리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 시애틀시는 쓰레기 제로운동의 방향으로 1) 폐기 대신 자원관리 2) 폐기 억제와 재활용을 통한 자연자원의 보존 3) 폐기보다 버려진 자원으로 직업과 새로운 생산품 만들기 4) 사용후 폐기될 수밖에 없는 생산품과 물질의 사용중단을 제안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8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들과 이행방안을 만들었다. 8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 줄이기와 자원의 보존의 증대 2) 2008년까지 재활용률 60% 달성 3) 효율성과 공정성 편리함에 바탕한 서비스접근의 증대 4) 지역 재활용시장의 확대와 재활용제품의 구매 증대 5) 지속가능한 쓰레기관리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책임 증대 6) 지속가능한 빌딩만들기 활동 7) 도시내

모든 사업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쓰레기관리와 자원보존의 촉진 8)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함으로써 이웃들의 청결과 안전성 확보 등이 그것이다.

132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는 인구 27만 정도의 도시로 2010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법률을 제정했다. 이른바 ‘No Waste by 2010’(쓰레기 없는 캔버라 2010) 계획을 세웠는데, 1996년에 수립된 이 계획은 최초로 쓰레기 없는 사회(Waste-Free Society)를 만들겠다는 선구적 계획이었다. 이러한 계획은 법령으로 뒷받침되었다. 캔버라는 쓰레기 제로화 전략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지역공동체의 동의 : 쓰레기 없는 사회 만들기 전략의 성공은 지역사회 혹은 공동체의 동의와 수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정보의 공개와 평가 환류, 쓰레기를 줄인 지역사회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 ② 회피와 감소 : 쓰레기목록은 지역사회에서 쓰레기가 폐기되거나 재활용되는 내용을 담아야 하고 쓰레기의 양과 질, 그리고 각 쓰레기의 총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환경친화적인 소비와 생산을 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생산과정에 대한 쓰레기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자원회수 : 쓰레기를 자원으로 회수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반은 분리배출과 처리과정이 필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회수된 자원의 교환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한 곳에 집중해 재사용가능성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
- ④ 잔여 쓰레기 관리 : 지속가능한 자원회수 시장과 영업을 발전 촉진시킬 수 있다. 매립세를 부과하는 것은 환경총비용을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회수를 촉진하게 된다.
- ⑤ 창조적 해결 방안 : 자원회수를 위한 연구와 조사는 자원회수를 최대

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자원회수시장을 발전시키고 촉진하게 될 것이다.

- 시애틀이나 캔버라시와 같은 쓰레기제로도시의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행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공동체와 시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이런 비전은 조금도 나아갈 수 없으며, 쓰레기제로도시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만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지자체가 쓰레기제로도시를 선언하나 허망하게 들리는 것은 이런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하기 않기 때문이다.

2 자원순환 의식조사를 통해 본 현황분석

- 이번 연구에서는 자원재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자원재사용, 재활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알아보고자 했다. 시민의식조사는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됐고, 강동구, 금천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용산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했다. 설문에 응답한 시민들은 모두 365명이었으며, 참여자들은 서울시에서 진행한 녹색장터 참가자 및 일반시민들로 구성됐다. 문항은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가정실태,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활동경험, 재사용·재활용에 대한 제도와 정책 이해 및 정책제안을 물어보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1 재사용, 재활용 가정실태

2.1.1 귀하의 가정에 사용하지 않은 물품은 얼마나 있나요?(추정치 작성)

구분	10개 미만	10~50개	50~100개	100~200개	200개 이상	모르겠다
응답자수	57	160	64	34	7	43
비율	15.6	43.8	17.5	9.3	1.9	11.8

2 1 2 **귀하가 가정에 가지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 중에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장터나 재활용매장에 내놓을 수 있는 물품은 얼마나 되나요?
(추정치 작성)**

구분	10개 미만	10~50개	50~100개	100~200개	200개 이상	모르겠다
응답자수	108	161	56	7	-	32
비율	29.6	44.1	15.3	1.9	-	8.8

2 1 3 **귀하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의 부피는 얼마나 되
나요? (시중에서 판매하는 라면상자 기준으로 추정)**

구분	5박스 미만	6~10박스	11~15박스	16~20박스	20박스 이상
응답자수	198	119	29	8	6
비율	54.2	32.6	7.9	2.2	1.6

-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은 강력한 정책으로 인해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짧은 기간에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참여에 기반을 둔 정책은 아직 미흡한 편이다. 이번 조사에서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했다. 그 결과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10~100개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이 61.3%로 나타났고, 10명 중 6명이 재사용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물건을 10~100개 가지고 있다고 응답해 적지 않은 수량을 재사용, 재활용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분량으로 볼 때는 5박스 미만이 54.2%, 6~10박스가 32.6%로 10박스 이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2 1 4 귀하는 사용하지 많은 물건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 점은 ?

구분	없다	별로 없다	조금 있다	많이 있다	모르겠다
응답자수	27	106	171	53	6
비율	7.4	29.0	46.8	14.5	1.6

- 이와 같이 집 안에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 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인해 불편함이 없다(7.4%), 별로 없다(29.0%)보다는 조금 있다(46.8%), 많이 있다(14.5%)가 61.3%에 달 해 불편이 있다는 주민의 비율이 그렇지 않다는 주민의 거의 2배를 차지 하고 있다. 이로써 주민들은 사용하지 않은 물품들이 적지 않게 있으며, 이에 따른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 1 5 귀하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이사 등 특정시점에 폐기처리할 예정이다	109	30.0
재사용장터나 재활용센터에 판매할 계획이다	95	26.2
이웃 등 지인들에게 기증할 예정이다	79	21.8
아무런 계획이 없다	80	22.0

-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자신의 집 앞마당세일(yard sale), 창고세일(garage sale) 등이 활성화되고 생활화되어 이사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물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이 런 문화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사 등의 시기에 폐기처리의 의사가 가 장 높고(30.0%), 다음으로 재사용장터, 재활용센터 등에 처분하거나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기증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과 같 은 대도시에서는 지역공동체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폐기처리될 양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2 1 6 **귀하는 남이 사용하는 중고물품을 사용한 경험이나 앞으로의 의향은 어떠합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사용경험도 없고 앞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다	34	9.3
사용경험은 없지만 앞으로는 사용할 생각이다	67	18.4
사용경험도 있지만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18	4.9
사용경험도 있고, 앞으로 사용할 생각이다.	241	66.0

- 우리 사회는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시민들의 중고품에 대한 거부 의식 및 불신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시민의식의 점진적인 변화로 위 표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사용 경험은 없지만 앞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18.4%)와 사용 경험도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생각(66.0%)이 전체의 84.4%로 나타나 중고품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 의식이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2 **재활용, 재사용 활동 경험**

2 2 1 **귀하가 생활 속에서 재사용·재활용 실천을 위해 평소에 행동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응답자수	비율
물건 오래 쓰기	225	23.8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217	22.9
일회용품 줄이기	194	20.5
재활용센터 및 버류시장 참여하기	146	15.4
이웃·친지와 의 기증 및 교환	154	16.3
기타()	10	1.1

- 시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재활용, 재사용과 관련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물건 오래 쓰기 / 장바구니 이용 / 일회용품 줄이기 / 이웃, 친지와의 기증 및 교환 / 재활용센터 및 벼룩시장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으며 편차는 크지 않았다.

2 2 2 귀하가 살고 있는 자치구(區)에 재활용센터 또는 재활용장터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구분	있다	없다	모르겠다
응답자수	253	17	94
비율	69.3	4.7	25.8

2 2 3 개설되어 있다면 어떤 종류인지 해당항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응답자수	비율
가전·가구 재활용센터	172	36.4
생활용품 재사용가게 (녹색가게, 아름다운 가게 등)	139	29.4
재활용장터 (벼룩시장, 녹색장터)	152	32.2
기타()	9	1.9

2 2 4 개설되어 있는 재활용센터의 거리와 희망하는 재활용센터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도보기준)

구분	0분 ~ 20분	20분 ~ 40분	40분 ~ 1시간	1시간 이상
응답자수	129	84	4.7	1.9
비율	35.3	23.0	4.7	1.9

- 주민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재활용센터나 재활용장터가 개설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는 10명 7명꼴로 비교적 높았다. 개설되어 있는 시설로는 구청이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전, 가구용 재활용센터

와 일반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재사용가게, 재활용장터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 또한 희망하는 거리, 즉 갈 수 있는 거리는 10분 이내로 응답한 사람이 57.8%였으며, 20분 이내는 82.9%, 30분 이내는 97.4%를 차지해 대부분의 시민이 재활용센터나 재활용장터가 20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2 2 5 **귀하는 살고 계신 구(區)의 재활용센터 및 재사용장터를 평소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자주 이용한다 (주1회 이상)	19	6.0
가끔 이용한다 (월2~3회 정도)	60	19.0
드물게 이용한다 (연5~6회 정도)	92	29.2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연2회 미만)	144	45.7

2 2 6 **재활용센터나 재사용장터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구분	응답자수	비율
TV방송 및 언론매체의 재활용센터 홍보	30	10.3
인터넷을 통한 재활용센터 홍보	27	9.3
친지 및 이웃의 권유	102	35.2
재활용센터 프로그램 참가	27	9.3
운영단체의 회원활동으로 참가	45	15.5
기타	59	20.3

2 2 7 **재활용센터나 재사용장터를 이용할 때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매우 만족함	만족하는 편임	만족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
응답자수	22	201	53	12
비율	7.6	69.8	18.4	4.2

- 주민들이 재사용매장이나, 재활용센터를 찾는 경우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주 이용하거나 가끔 이용하는 비중은 4명 중의 1명꼴이며, 75%는 드물게 이용하거나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아서 이용한 4명 중의 3명이 매우 만족하거나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만족하지 않거나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이는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말하며, 다만 접근성과 홍보부족 등이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2 8 **재활용센터나 재사용매장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찾아가는 방법을 모르거나 불편해서	69	28.2
물품이 다양하지 않거나 품질 보장이 안되어서	70	28.6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서	42	17.1
남이 쓰던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꺼려져서	24	9.8
평소에 재활용이나 재사용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24	9.8
기 타()	16	6.5

- 주민들이 재활용센터나 재사용시장 등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물품의 다양성과 품질보증의 문제(28.6%), 접근성의 부족(28.2%), 제품에 비해 비싼 가격(17.1%)이 전체의 73.9%를 차지했다. 반면에 과거에 재활용에 대한 인식은 많이 나아져 남이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나, 관심 자체가 없다는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해 시민들의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2 9 귀하는 우리사회의 자원순환 정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구분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보통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응답자수	3	28	125	162	42
비율	0.3	7.8	34.9	45.3	11.7

- 우리 사회의 자원순환 정도가 매우 높거나(0.3%), 높은 편(7.8%)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낮은 편(45.3%), 매우 낮은 편(11.7%)이라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중은 훨씬 높았다. 이는 환경부나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서울의 재활용률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이며, 시민단체가 지난 2005년 자치구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활성화되어 있다(43%), 보통이다(52%)와도 상반된 결과이다(2005, 재사용문화확산을 위한 벼룩시장 보고서 p30, 한국YMCA 전국연맹). 또한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시민참여를 중점에 두지 않아 정책담당자와 시민들의 인식 격차가 큰 탓이며 앞으로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에도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2 2 10 주민자치센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 재활용·재사용매장이나 벼룩시장을 개설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적극 찬성한다	찬성한다	보통이다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응답자수	126	180	47	9	0
비율	34.8	49.7	13.0	2.5	0

- 시민들은 재사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센터나 공원 같은 공공장소에 재활용센터나 재사용 벼룩시장 등을 개최하는 데 적극 찬성 34.8%, 찬성 49.7%를 보여 적극적인 찬성의지를 나타냈으며 반대하거나 적극 반대하는 주민은 단지 2.5%에 그쳤다. 이는 주민자치센터나 생활근거지에 있는 작은 소공원 등을 활용해 정기적인 재사용 교환장터나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2 11 주민들의 재사용, 재활용이 활성화되려면 어떤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응답자수	비율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73	20.6
봉사활동의 인정	42	11.8
가까운 재사용장터의 정기적인 개최	134	37.7
물품공유센터나 재활용센터의 설치	94	26.5
기타	12	3.4

- 재사용, 재활용의 활성화를 묻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생활 근거지와 가까운 곳에 정기적인 장터를 개설할 것을 가장 많이 지지했으며 (37.7%) 물품공유센터나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것(26.5%)을 요청하고 있다.

주민참여 재사용, 재활용 해외사례

- 연구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주민참여 행정, 민관협력의 거버넌스의 경험이 많지 않고 시민의 욕구에 기반을 둔 행정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시민과 행정 간의 괴리가 큰 편이다. 단적인 예로 재사용, 재활용에 대해 정부와 행정기관은 높게 평가하는 반면, 시민들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고 본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과 눈높이를 같이하지 않으면 안된다. 재사용, 재활용 분야에서 주민참여의 선진사례를 통해 시사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브라질의 꾸리찌바의 ‘쓰레기 아닌 쓰레기 프로그램’

- 브라질 남부에 있는 꾸리찌바시는 환경 분야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우수 환경과 재생상’을 수상한 도시이다. 이 도시는 오늘날 지구촌의 대도시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인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꾸리찌바는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동기를 빈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체 정신 함양, 환경교육, 빈곤 완화, 알코올 및 약물 중독자의 사회복지 등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흔히 꾸리찌바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사례의 상징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다.
- 꾸리찌바에는 사회적 행동과 통합된 2가지의 혁신적인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 꾸리찌바에서 가장 역점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거대한 환경교육 사업 중 하나인 ‘쓰레기 아닌 쓰레기’ 프로그램은 시립학교에서 환경교육 캠페인과 함께 1989년 10월에 시행되었는데, 쓰레기 분리

수거 정보가 담긴 간단한 유인물이 아이들과 가정에 배포되고 재활용품에 대한 가두수거 정보도 배포됐다. 이 사업은 아이들과 재사용, 재활용의 의미에 대해 공감하고, 주일의 낮 시간대에 시행되는 일반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보를 가구들에 알려줌으로써 쓰레기 문제에 관한 대중의 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 그리고 환경교육의 주요 대상인 아이와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리사이클링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즉, 도로를 따라 붙인 벽보는 “종이 50kg이 나무 한 그루와 같다”, “우리 모두 리사이클링에 참가합시다”라고 호소하면서, 나뭇잎 모양의 의상을 차려입은 배우들이 참가하는 텔레비전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 캠페인은 배우들이 학교를 방문하면서 강화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과 유관기관의 기관장은 물론이고 지역주민 모두가 참가하는 대규모 ‘나뭇잎 가족’ 캠페인 행사로 정례화되었다.
- 재활용품은 1965년에 시청의 후원 아래 설립된 사회교육통합재단(FREI)이라 불리는 공공기관이 세세하게 분류해 처리한다. 이 재단이 운영하는 레프트오버 재활용공장은 꾸리찌바시 근교의 캄보 마르고(Campo Margó)에 있는 ‘협동농장’에 입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는 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교육통합재단은 알코올중독자와 극빈층 사람들을 사회 속으로 재통합하는 것을 추구한다.
- 레프트오버 재활용공장에는 명실상부하게 재활용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들이 있다. 이들 시설은 이곳을 쓰레기만 재활용하는 공간이 아니고, 생생하게 살아 있는 환경교육을 시키는 거점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시설들이다. 그 중 하나는 ‘쓰레기 아닌 쓰레기 박물관’이라 불리는 작은 박물관으로, 여기에서 우리들은 다른 박물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사하고 볼품 있는 비싼 전시물은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대신에 꾸리찌바 시민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 더미에서 골라낸 시시콜콜한 생활소품에서부터 누렇게 변한 사진, 동전 및 지폐, 그림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가사용품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전시물에는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부터 현재까지 꾸리찌바 사람들의 기나긴 역사의 흔적과 끈끈한 땀이 배어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문명의 화석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 또 다른 시설로는 ‘작은 학교 Escolinhir’가 있다. 학교라기보다 오히려 조그만 교실에 가까운 이곳에는 책상과 걸상, 비디오, TV 등 환경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레프트오버 재활용공장에서 나온 것들을 수리하거나 조립해서 만든 소박한 물품들이다. 이곳을 방문한 꾸리찌바시와 위성도시의 학생들과 어린이들은 재활용한 비디오를 통해 간단한 시청각교육을 받고, 쓰레기가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를 실례를 통해 보고 배운 후 재활용공장과 ‘쓰레기 아닌 쓰레기 박물관’ 등을 직접 견학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쓰레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학습하고, 나아가 리사이클링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배운다.
- 또한 사회교육통합재단은 재판매가 가능한 물건을 저장했다가 시에 의해 조직된 시영벼룩시장에서 판매한다. 꾸리찌바에는 부서졌거나 재판매가 가능한 물건을 기증받는 특별전화가 있고, 특별한 수거시간표에 따라 그것을 수거해 간다. 이 모든 판매수입은 지방의 사회적 프로그램에 재투자되고 있다.
- 재활용품 수거에 ‘공식적’인 수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약 1천 명의 비공식적인 수집상이 개량형 손수레를 끌고 접근하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

나 빈곤 지역을 살살이 뒤져 재활용품 쓰레기를 수거(이들에 의해 수거 되는 폐지 수거량은 1일 1백50톤 정도)하고, ‘쓰레기 아닌 쓰레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시는 이들의 노력을 유용한 공헌을 하는 중요한 직무로 인정함으로써 그들의 직업에 더 존경심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비공식적인 수집상들에게 유니폼을 제공해 주고, 손수레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 이러한 비공식적인 수집상들이 공식적인 수거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도시 전역의 사각지대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한 후 ‘히코페르(Recoopere)’라고 불리는 재활용협동조합에 가져오면, 조합은 무게를 재어 그 대가를 돈으로 환산해준다. 그다음에 시와 히코페르 사이에 구축된 협조체계를 통해 시에서는 다시 한 번 재활용 쓰레기를 순환시킨다. 예를 들면, 종이 가운데 재활용하기 어려운 폐지는 묶은 후 압축해서 슬레이트 기와 공장으로 보낸다.
- 이밖에 ‘쓰레기 아닌 쓰레기’ 프로그램이 독특한 것은 시에 의해 폐기물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난감 공장이 있다는 점이다. 그 아이디어는 약 600명의 산업디자인 연수과정 학생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인형을 개발했던 ‘꾸리찌바 창조센터’의 1일 작업장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개발된 모형을 빈민지구의 한 장난감 공장으로 가져갔고, 그것이 아이들을 자극하여 자신의 인형을 만들도록 발전해 나갔다.
- 꾸리찌바시에서 시행된 2번째 혁신적인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은 ‘쓰레기 구매’라고 불린다. 이 프로그램은 1989년에 시립보건소가 파벨라에서 랩토스피라병이 창궐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데 뿌리를 두고 있다. 시의 주변지역에 입지한 보건소들은 쥐와 파리가 옮기는 병원균이 파벨라

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만연시키고, 그것이 폐기물 투기에 의해 확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꾸리찌바에서 빈민들은 일반적으로 상파울루나 리우데자네이루와 달리 언덕에 정주하지 않고 하천변을 점유한 채 살고 있다. 이들 지역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수거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파벨라에서는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는 일이 일상적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렙토스피라병과 같은 질병을 가져왔던 것이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채택한 방법은 단순하지만 매우 능률적이었다. 꾸리찌바시 주민의 약 15%가 거주하는 53개 파벨라(favelas)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시키고, 나아가 자원재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즉, 폐기물 수거 비용을 민간회사에 지불하는 대신에 시는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 지역주민들에게 쓰레기 5kg당 1개의 식품가방을 나누어 주었다. 여기에는 보통 쌀, 콩, 감자, 양파, 오렌지, 마늘, 계란, 바나나, 당근과 꿀 중 하나 이상이 담겨져 있다. 이들 재화는 주로 시가 이하로 농산물시장이나 주변지역 농가들로부터 시청이 구입한 잉여농산물로 이루어진다. 그 결과 꾸리찌바시는 빈민들에게 생활의 질 향상과 영양 개선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편익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이와 같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는 녹색교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을 포함해 꾸리찌바시 시민 모두에게 재활용 쓰레기는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식품, 학용품 등과 교환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자 미래를 위한 값진 돈이라는 사실을 마음 속 깊이 새겨 주었다. 그것은 녹색교환에 참여하는 꾸리찌바 시민의 태도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다.
- 꾸리찌바의 이와 같은 혁신적인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전 세계의 재사용, 재활용의 성공적인 사례로 등장했으며, 특히 빈곤문제와 재활용 프로그램

램을 연계시킴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아동들의 학교 교육과 환경교육, 경제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미래세대들이 어릴 적부터 재사용과 재활용을 생활속 습관이 되도록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우리사회에서는 빈곤층이 가장 낮은 단계에서 재활용 수집 활동을 하는 것을 감안해 응용할 필요가 있으며, 재활용을 학교교육과 연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3.2 생태마을과 자원순환 -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보봉마을

- 독일의 보봉은 생태마을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보봉은 프라이부르크 중심가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으며, 우리의 용산 미군기지처럼,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병영이었고 1992년 연합군이 철수하기 전까지 프랑스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프랑스군의 철수 결정에 따라 프라이부르크시는 ‘연합군 철군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포럼 보봉’이 출범하였는데 이는 주택난에 허덕이던 가난한 학생들과 빈민들이 주축이 된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시민자치모임이었다.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포럼 보봉은 몇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생태마을 조성을 시도하였고, 400여세대로 시작한 보봉 단지는 2006년까지 약 2,000세대(6,000여명)가 거주를 예정할 정도로 독일 내에서는 유명한 마을이 되었다.
- 포럼 보봉은 석유, 석탄, 원자력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에너지 이용을 거부하고, 태양광과 바이오매스(음식찌꺼기나 쓰레기를 발효시켜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를 주에너지원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을 줄이고, 쓰레기 발생과 물 사용을 최소화하여 순환적 생태시스템을 이룸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 보봉마을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태양광으로 지붕 전체를 덮고 있는 마을 외곽의 주차장이다. 마을 내부에는 보행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마을 외곽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진입 방지를 유도하였다. 이로써 교통사고도 감소하고, 자동차 사용을 줄임으로써 대기오염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또한 자동차 진입을 막음으로써 아이들이 언제든지 뛰어 놀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어, 곳곳에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로 즐겁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 더불어 에너지의 수급을 별도로 하지 않는 ‘제로 에너지 주택’으로 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한다. 지붕위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시설, 작은 규모의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쓰레기를 발효시켜 얻은 메탄가스로 열병합 발전을 하여 난방열과 전력을 동시에 얻기도 한다. 이처럼 자연이 주는 각종 에너지를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단열과 통풍을 철저히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주택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 보봉단지의 또 다른 특징은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리사이클이 매우 잘 되어있다는 점이다. 재활용과 재사용을 위한 철저한 4가지 종류의 분리수거함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하기 위한 퇴비 수거함도 눈길을 끈다. 물품의 재사용을 위한 재활용 가게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으며, 아이들의 놀이터도 재활용된 물품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져 있다. 이는 보봉 마을뿐만 아니라, 프라이부르크시 생태환경정책의 결과이다.
- 프라이부르크시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포장을 규제하고, 용기 반납제도를 현실화시킴으로써 세계 최고의 재활용 도시를 만들었다. 프라이부르

크시의 이런 재활용 정책으로 쓰레기 배출량은 1/6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재활용률은 19%에서 70% 수준으로 높아졌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는 최근 우리사회의 지역재생활동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역 중심의 자원순환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 때, 지속가능한 미래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봉의 사례는 말해주고 있다.

3.3 에코타운 - 일본의 기타큐슈

- 독일의 보봉마을이 주민 주도로 만들어진 생태순환마을이라면, 일본의 기타큐슈는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전략적으로 조성한 에코타운이다. 대도시에서의 자원순환문제는 에코타운의 모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는 열도의 서쪽 끝, 규슈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이다. 산업발전기(1950~60년대)에 극심한 환경오염으로 제1의 공해도시로 지목되던 이곳이 70년대부터 시작된 공해 방지 노력으로 지금은 제1의 환경도시로 불리고 있다. 기타큐슈시는 1970년대까지 일본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로 철로와 항만을 갖춘 편리한 물류 환경 덕에 제철소와 시멘트, 기계화학 등 중화학공업도 발전했다. 그러나 발전과 더불어 환경오염은 심각해져 갔는데, 제철소에서 흘러나온 오폐수는 배(船)를 부식시킬 정도로 심각해 죽음의 바다가 되었고, 하늘을 덮은 스모그(smog)는 각종 질병을 유발했다. 오염이 심각해지자 시민, 기업, 지자체가 힘을 합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엄격한 공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등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 회색도시를 지금의 녹색도시로 탈바꿈시켰다.
- 특히 1997년 기타큐슈시는 이러한 공해 극복 경험과 기술을 살려 새로

운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본 최초의 에코타운을 건립하였다. 에코타운이란 ‘모든 폐기물을 타 산업 분야의 원료로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폐기물을 제로(zero)화 한다’는 것을 목표로 종이류, 캔, 병 등 18개 항목을 자원으로 재생하는 재활용 종합 환경산업단지이다.

- 일본의 에코타운 모델로 불리는 기타큐슈 에코타운은 2천 헥타르(ha)의 매립지에 기타큐슈시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29개의 재활용 기업이 입지하여 1,3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에코타운에 입주한 기업들은 끊임없이 폐기물 무배출화에 도전하고 있는데, 시 전체에 다양한 환경비즈니스가 확산되고 있다. 깨끗해진 환경과 일자리 창출, 3R(Reduce-감소,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 성공으로 시민들도 더욱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이처럼 기타큐슈시는 지역주민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을 재생하고 자원과 에너지 순환을 실현하는 동시에 저탄소 에코타운이 실현(이산화탄소 27만t→6만4천t 감소)되어 일본 정부로부터 ‘환경모델도시’로 선정되었다. 현재 기타큐슈 에코타운은 일본의 27개 에코타운 단지 중 최고의 재활용시설로 인정받고 있다.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있는 기타큐슈 에코타운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사례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볼 만한 곳이다.

4 변화하는 서울, 자원순환정책의 방향

4.1 마을공동체, 마을시장 형성과 자원재사용, 재활용

- 2012년 서울에서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마을만들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됨으로써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다. 마을공동체활동은 아직 초

보적인 활동이기는 하지만 협력적 민관거버넌스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재사용, 재활용 영역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이웃들끼리 물건을 나눠쓰고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의 사용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고 공동체적 감수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마을공동체와 연계해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재사용, 재활용 활동들이 있을 것이다.
- 브리질 꾸리찌바시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은 무엇보다 일상생활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을 통해 재사용, 재활용이 일상화되는 것은 자원순환운동의 최고 목적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장터의 설립과 운영은 마을공동체 활동의 중요한 활동이므로 재사용, 재활용과 연계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사용, 재활용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녹색장터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취지이기도 하고, 좋은 접근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는 냉정하게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무엇보다 정책의 좋은 취지와 방향에도 불구하고 주체의 형성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부족이 큰 문제였다. 녹색장터 활성화가 성과중심, 결과중심으로 가다보니 녹색장터의 숫자를 늘리는데 급급했고, 내 실화를 도모하는 데는 소홀했다. 따라서 녹색장터, 마을장터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섬세한 이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담당부처 내에서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자원순

환 분야와 마을공동체 분야가 목적과 자원을 공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 안에서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은 중복되면서 효율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행정내에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또한 민간주체와의 협력적 방식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치열한 경쟁사회가 된 한국사회에서 지역공동체와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일하는 주체는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민간차원에서 주체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지원과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2 주민참여형 마을장터의 사례

4.2.1 영등포구 달시장

- 영등포 문래동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등포구 달시장은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가 주축이 되어 영등포구청, 청년 예비 사회적기업 방물단, 한국암웨이, 연세대(하자센터의 위탁운영 주체), 서울시 등이 골고루 참여하고 있는 민관산학의 대표적 사례다. 특히 2014년부터는 영등포사회적경제협의회, 영등포 마을공동체 자치구 생태계 조성지원단, 영등포 청년마을네트워크, 영등포 희망동네 등 그간 자체적으로 구성된 지역 기반 그룹들이 달시장에 합류하면서 지역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 장터에서는 물건은 물론 재능이나 기술까지 다른 주민들과 바꿀 수 있는 물물교환, 우산이나 시계 등 살림살이들을 고쳐 쓰는 마을 수리소, 면생리대, 천연 모기퇴치제 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생필품 워크숍, 미싱이나 손바느질로 수선, 리폼해 보는 재활용공방, 햇빛 건조기 같은 적정기술 도구를 만들어보거나 전시하는 적정기술 워크숍 등 삶의 지혜를 모은

‘마을살림장’이 중심에 배치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지역에 시작하려는 기업들은 ‘마을씨앗가게’로 선정되고, 영등포 및 서울 전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선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해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다.



4 2 2 마포구 연남마을시장

마포구 연남동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남마을시장도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예술을 일상속에서 실현해나가고자 하는 문화예술기획그룹인 일상예술창작센터가 주축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연남마을시장도 마을장터와 가능성과 미래를 보여준다.

마을장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인 콘텐츠와 기획이 필요하고, 이것이 지역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주민들이 주체로 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곤란하지만,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요소가 고려되어야 함을 연남마을시장이 보여준다.

일상예술창작센터가 중시하는 손작업을 통해 질 좋은 제품을 스스로 제작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대문명이 야기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소비사회문화를 극복해나가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수동적 대상, 소비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며 적

극적인 생산자, 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재활용센터, 재사용장터가 단순한 소비자로 머물렀다면 새롭게 등장하는 대안적 마을시장은 능동적 시민과 생산자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423 구로구 별별시장

구로구에서도 구로는 대학이라는 팀이 중심이 되어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구로구 별별시장을 개최하고 있다. 시민들은 문화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거듭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런 욕구는 문화와 결합된 마을장터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다.

구로에서 일어나는 별의별 이야기를 다 담겠다는 뜻에서 ‘별별장터’라고 이름한 이 마을장터는 개인들이 욕구와 욕망을 반영하고 있다. 장터에는 중고물품을 판매·교환하는 벼룩시장, 수공예품을 파는 아트마켓, 어린이들을 위한 예술 체험부스, 방문자들의 흥을 돋울 야외 공연무대, 구로 곳곳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우리동네 마을 영상제, 일회용품품을 사용하지 않고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먹거리 마당 등이 있다.

- 이밖에도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다양한 마을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과거의 단순한 재사용, 재사용 시장에서 문화와 지역이 결합된 형

태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저성장,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함에 따라 지역과 마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다양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필요한 것은 이런 건강한 움직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주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일이다. 외부의 문화기업 활동가들이 초기의 마중물 역할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성장이나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사용, 재활용 등 자원순환의 영역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와 민관, 민민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체가 되어야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구로구 별별시장 행사모습]

4 2 4 자원순환과 공유경제의 접목

- 2008년 미국발로 시작된 경제위기로 인해 부각되는 새로운 영역 중의 하나는 공유경제이다. 그동안 현대사회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초해 운영되어 왔고, 이와 같은 시스템이 환경문제, 물신주의 등 다양한 사회적 병폐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 공유경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공유의

방식을 통해 극복해보자는 시도이다.

- 공유(共有)는 공유(公有)와 사유(私有)와 다른 개념이다. 국가와 시장은 공유를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2009년 오스트롬이 노벨경제학상을 통해 증명한 것처럼 인류공동체는 공유에 의해 유지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사유는 인류의 수많은 자산을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기에 제레미 리프킨은 2000년 초에 이미 소유의 종말을 이야기했다. 공유경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였으며, 환경의 위기 / 능동적인 새로운 소비자의 출현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힘입어 본격화되고 있다.
- 도서관은 공유경제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개인들이 집에 수많은 책을 쌓아두면 많은 비용이 초래한다. 하지만, 동네마다 마을마다 마을도서관이 있으면 굳이 책을 소유할 필요가 없다. 이는 식당, 주택, 교육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으로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 사회적 경제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경제적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 분야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라면, 공유경제는 SNS 등의 정보통신을 플랫폼으로 하여 시간, 재화, 물건, 지식이나 정보, 경험 등의 공유를 통해 쓰이지 않고 놓고 있는 것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협력적 소비란 말처럼 소비의 공유화, 최적화를 통해 효율성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공유경제의 개념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 공유경제와 결합한 재사용, 재활용 사례
- 중고유아용품 공유기업 ‘키플’, 중고도서공유기업 ‘국민도서관 책꽃이’

- 우리 사회에서 공유경제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자원순환 분야에서도 공유경제와 결합이 일어나고 있다. 공유경제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에서 시작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우리 사회도 저성장, 제로성장이 가시화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다. 앞으로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맞춰 주민참여형 재사용, 재활용을 새롭게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 키플은 유아용 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공유기업이다. 우리나라가 2014년 출산율 1.25명으로 전 세계 225개국 중에 219위에 머물러 초저출산율 국가라는 것이 보여주듯 대부분의 가정이 아이들을 1명, 많아야 2명을 낳은 추세가 일반화되었다. 아이들의 성장주기가 빠르고, 순환되지 못하는 아이옷 시장의 빈 영역을 보고 키플이라는 공유기업은 아이들의 중고의류를 공유경제의 관점에서 전문화시키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가족 형태가 달라지고, 지역공동체의 기반이 약화되는 상태에서는 시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기반하는 공유기업의 몫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중고서적을 공유하는 국민도서관도 책을 중심으로 공유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많은 책이 지역과 온라인을 통해 공유될 때 책의 값어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다. 옷과 책 같은 특정한 영역에서 전문화를 모색하는 공유기업은 저성장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시민들의 욕구와 맞물려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올 것이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극복해야 할 요소나 문제들이 많겠지만, 공유경제가 새로운 시대의 흐름으로 등장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유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성화시킨다면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중고서적공유기업 국민도서관 책꽂이]



[중고아동류 공유기업 키플]

4 2 5 재사용, 재활용과 사회적 경제

-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전국에서 2년이 되지 않은 사이에 5천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신고되었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실업과 경기침체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되어 예상보다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재사용, 재활용 또한 사회적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약 750개의 고물상과 3만 여명의 고물수집인이 있지만, 이들이 개별적이고 분산적인 활동을 하기에 활동의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서울시와 재활용 사회적기업인 '에코그린'이 단독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시범적인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재활용쓰레기를 집 앞에서 돛으로 써 환경적, 위생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다. 사회적기업 에코그린은 집 앞에 버리던 재활용쓰레기의 거점 수거방식으로 재활용정거장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 물론 재활용정거장 사업이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주민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에코그린은 향후 동을 중심으로 한 재활가용수집상을 핵심자원으로 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인큐베이팅하고 있다.

III 결론

1 주민참여 재사용,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안

III 결론

1 주민참여 재사용, 재활용센터 활성화를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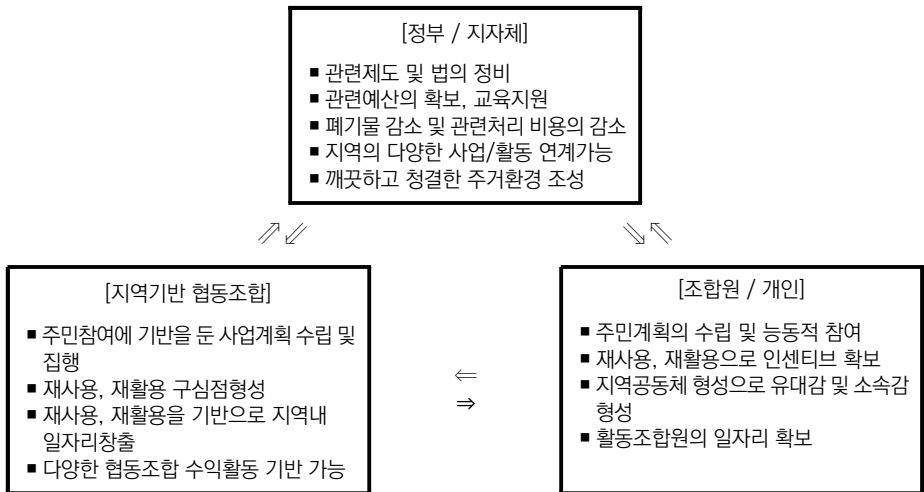
- 서론에서 우리나라의 재사용, 재활용 정책은 국가의 강력한 정책에 힘입어 비교적 단시간에 비교적 높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지만, 사상누각의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없는, 국가가 강제하는 방식은 단기간의 효율성이 있지만 기반이 튼튼하지 않으며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힘들다.
- 현대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고, 다양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가 쉬워졌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시민들의 참여욕구는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그 분야의 명암이 엇갈린다. 산업이나 경제구조도 공급-소비의 일방적 형태에서 벗어나 쌍방향적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공유경제, 사회적 경제 등 새롭고 대안적인 영역이 주목을 받고 있어 이들과의 적극적인 접목이 필요하다.

1 1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사용, 재활용 협동조합의 구성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재사용, 재활용 협동조합의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인 에코그린이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재사용, 재활용 협동조합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고, 지속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내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 실제로 시범사업 결과 재사용, 재활용 협동조합을 통해 거점 분리만 시

행해도 자치구당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바로 지역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활성화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와도 바로 접목될 수 있을 것이며 정부 및 자자체가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 지역내 재사용, 재활용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활동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내 공동체적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며, 예산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역조합 활동을 통해 미래세대의 환경교육 등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과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브라질 꾸리찌바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절감된 예산 중 일정 부분을 시민들의 재사용, 재활용 프로그램 개발과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면 자원순환의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역내 다양한 사회적 경제조직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은 시민참여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기반 재사용, 재활용 협동조합 구성 시 역할과 기대효과]

재활용센터, 재사용매장의 환경 개선과 대안적 운영

- 서울시내 25개구에 35개소의 재활용센터가 구청의 민간위탁 내지 지정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민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의 활용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상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고, 사후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에다 재활용센터가 외진 곳에 있어 접근하기가 힘들며, 대부분의 재활용센터가 가지고 있는 세련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용을 꺼려 한다고 지적했다.
- 이는 재사용, 재활용의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리시장에만 맡겨 두고 수익성을 중심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향후 우리 사회가 직면할 수 있는 저성장사회, 환경과 생태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시민들도 이러한 요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따라서 재사용매장, 재활용센터의 환경 및 시설부문은 국가와 지자체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에 지역의 협동조합이 참가해 주민참여의 문화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의 내실있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재사용 / 재활용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익적 문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문제도 보다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재활용센터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개별적, 분산적 운용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재활용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통합적 플랫폼과 다양한 활동과 연계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 재활용센터는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규모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나라 최대의 카페인 네이버의 ‘중고나라’는 회원가

입자가 1,200만명으로 통합 재사용, 재활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참고할 만하며,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시킨다면 공익적 기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3 다양한 문화, 지역사회와 결합한 마을시장의 활성화

- 앞서 본 것처럼, 지역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마을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앞으로 개인들의 욕구와 욕망은 더욱 다양해지면서 보다 깊이 있는 형태를 추구할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을시장은 다양해지는 욕구와 욕망을 수렴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문화의 다양성, 문화 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 앞으로의 사회생산시스템 또한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양식을 벗어나 보다 고품질 소량생산체제, 수공업적 생산양식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바탕의 마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마을시장의 주민들은 문화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가 되는 보다 완성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마을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확보, 주체의 형성, 제도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

14 사회적 경제와의 연결과 결합

- 양극화, 저성장 시대의 돌입 등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는 더욱 악순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시장경제는 사회불평등의 악순환을 심화시켜 왔으며, 지속가능성과 순환의 관점보다 단기적인 성과, 욕망의 만족에 중심을 두었다.

- 자원재사용과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와의 적극적인 연결과 결합이 필요하다. 자원순환 분야에서 다양한 아이টে으로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결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특히 자원순환의 분야는 지역내의 공유경제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자원순환과 공유경제를 연결해 법과 조례가 제정할 경우 의식조사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주민들의 참여와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
- 하지만 이것을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거나 개입할 경우에는 적절한 효과와 의미가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기반만 조성하고,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에 지역내 자원순환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15 쓰레기제로사회를 위한 주민참여 지역모델 개발

- 인구 천만의 대도시에서 주민참여형 쓰레기제로사회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주민참여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 아니면 동 단위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모델이 만들어지면 정보통신의 시대에 그 확산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 이를테면 주민들이 쓰레기없는 마을이라는 마을계획, 지역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게 하고, 행정은 이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제공 및 물적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토대를 갖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형성하는데 바람직하다.

- 우리 사회는 주민자치와 협동의 경험이 취약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최근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 참여욕구는 높아가고 있으며 이를 실행해나갈 수 있는 초기의 적절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새로운 미래에 대한 공동 비전의 부족, 공동활동 경험의 부재, 행정과 주민의 상호 신뢰 부족 등이 이런 활동을 가로막고 있지만 보다 좋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새로운 혁신과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부록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조사

- 재사용, 재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

* 이 조사에서 '재활용센터'는 가전가구, 의류, 생활용품 등을 기증·교환·판매 운영하는 상설매장을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사용·재활용 시민운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녹색가게운동사무국입니다.

녹색가게운동사무국에서는 재활용, 재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며, 이 조사는 자원 순환형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귀하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02-395-5828)

[가정실태 부문]

1. 귀하의 가정에 사용하지 않은 물품은 얼마나 있나요? (추정치 작성)

- | | |
|------------|----------------|
| 1) 10개 미만 | 2) 10~50개 |
| 3) 50~100개 | 4) 100~200개 이상 |
| 5) 200개 이상 | 6) 모르겠다 |

2. 귀하가 가정에 가지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물품 중에서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장터나 재활용매장에 내놓을 수 있는 물품은 얼마나 되나요? (추정치 작성)

- | | |
|------------|----------------|
| 1) 10개 미만 | 2) 10~50개 |
| 3) 50~100개 | 4) 100~200개 이상 |
| 5) 200개 이상 | 6) 모르겠다 |

3. 귀하는 사용하지 많은 물건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 점은 ?

- | | |
|----------|----------|
| 1) 없다 | 2) 별로 없다 |
| 3) 조금 있다 | 4) 많이 있다 |
| 5) 모르겠다 | |

4. 귀하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 1) 이사 등 특정시점에 폐기처리할 예정이다
- 2) 재사용장터나 재활용센터에 판매할 계획이다
- 3) 이웃 등 지인들에게 기증할 예정이다
- 4) 아무런 계획이 없다

[활동경험 부문]

5. 귀하가 생활 속에서 재사용·재활용 실천을 위해 평소에 행동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1) 물건 오래 쓰기 | 2)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
| 3) 일회용품 줄이기 | 4) 재활용센터 및 벼룩시장 참여하기 |
| 5) 이웃·친지와 의 기증 및 교환 | 6) 기타() |

6. 귀하는 재활용센터나 재사용장터(벼룩시장)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 | | |
|-----------------|--------------|
| 1) 있다 (4번 5번으로) | 2) 없다 (6번으로) |
|-----------------|--------------|

7. 있다면 재활용센터나 재사용장터를 이용하게 된 계기는?

- | | |
|--------------------------|---------------------|
| 1) TV방송 및 언론매체의 재활용센터 홍보 | 2) 인터넷을 통한 재활용센터 홍보 |
| 3) 친지 및 이웃의 권유 | 4) 재활용센터 프로그램 참가 |
| 5) 운영단체의 회원활동 | 6) 기타() |

8. 재활용센터나 재활용장터를 이용할 때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 | |
|------------|---------------|
| 1) 매우 만족함 | 2) 만족하는 편임 |
| 3) 만족하지 않음 | 4) 전혀 만족하지 않음 |

9. 재활용센터 이용 경험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평소에 재활용, 재사용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서
- 2) 지리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서
- 3) 재활용 물품의 다양성 및 품질보장이 안 되어서
- 4) 제품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 5) 남이 쓰던 물건 사용이 꺼려져서
- 6) 재활용센터 이용시간이 제한적이어서
- 7) 기타()

[제도/정책 부문]

10. 귀하가 보실 때 우리 사회의 자원순환 정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 | |
|----------|-----------|
| 1) 매우 높다 | 2) 높은 편이다 |
| 3) 보통이다 | 4) 낮은 편이다 |
| 5) 매우 낮다 | |

11. 귀하가 살고 있는 자치구(區)에 재활용센터 또는 재활용장터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 | | |
|------------------|-------|
| 1) 있다 (8번, 9번으로) | 2) 없다 |
| 3) 모르겠다 | |

12. 개설되어 있다면 어떤 종류인지 해당항목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가전·가구재활용센터 | 2) 생활용품 재사용센터 (녹색가게, 아름다운가게 등) |
| 3) 정기벼룩시장(재활용장터) | 4) 기타 |

13. 귀하는 살고 있는 구(區)의 재활용센터 및 재활용장터를 평소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 | | |
|----------------------------|----------------------------|
| 1)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주1회 이상) | 2) 가끔 이용하는 편이다 (월2~3회 정도) |
| 3) 드물게 이용하는 편이다 (연5~6회 정도) | 4) 거의 이용하지 않는 편이다 (연2회 미만) |

14. 주민자치센터, 공원 등 공공장소에 재활용·재사용을 위한 매장이나 장터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적극 찬성한다 | 2) 찬성한다 |
| 3) 보통이다 | 4) 반대하는 편이다 |
| 5) 적극 반대한다 | |

15. 우리 사회가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기 위해 우선시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를 적어 주십시오.)

- 1) 자원순환형 사회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제도 수립 ()
- 2) 시민들의 생활속 재사용·재활용 실천운동 ()
- 3) 환경친화적인 상품 및 재활용 산업 육성 ()
- 4) 재활용, 재사용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성화 ()
- 5) 기타 () ()

• 귀하의 성별은? ① 여성 ② 남성

• 귀하의 연령은?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 귀하의 직업은? ① 주부 ② 전문직 ③ 회사원 ④ 자영업 ⑤ 학생 ⑥ 기타

• 닥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만원 이상

서울연 2014-CR-07

주민참여형 자원재사용·재활용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인 김수현

발행일 2014년 9월 30일

발행처 서울연구원

137-071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전화 (02)2149-1234 팩스 (02)2149-1019

비매품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